

Economy Brief

미국 금융시장, 소방수가 부재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바이백 규모 실망감과 미국-이란간 군사 충돌 우려 확산으로 국채금리와 유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금융시장내 불안감을 높임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장관이 유가 및 장기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줄어드는 모양새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및 베센트 장관이 금융시장 및 유가불안을 마냥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깜작 카드를 선보일 가능성은 잠재해 있음

국채금리와 유가 악순환에 갇힌 금융시장

국채금리 및 유가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장기 국채금리 안정을 위한 베센트 장관의 바이백 조치도 시장의 눈 높이를 맞추지 못하면서 오히려 실망감으로 작용했다. 당초 바이백 조치가 장기 국채금리를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은 분명했지만 규모측면에서 베센트 장관이 추진한 바이백 규모가 시장에 큰 서프라이즈 혹은 감흥을 주기에는 미약했다. 미 재무부는 10일 60억 달러 한도로 잔존 만기 10~20년 국채에 대한 바이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백 규모가 최대 20억 달러에서 60억달러로 3배 이상 확대되었지만 100억 달러가 넘는 바이백을 내심 기대했던 금융시장의 눈 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베센트 장관의 바이백 조치로 강화되었던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도 다소 주춤해진 분위기다.

바이백 규모에 금융시장이 실망감을 보이 이유는 일종의 소규모 양적완화와 같은 베센트장관발 바주카포를 금융시장이 내심 기대했지만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이 정도의 바이백 규모로는 장기 국채금리 상단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시장이 냉혹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번 바이백에 대해 금융시장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 또 다른 이유로는 유가도 한 몫을 했다. 미국-이란간 군사적 긴장감 확대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홍해마저 통행이 위협받으면서 유가가 급등한 것이 바이백 효과를 약화를 초래했다. 사우디와 후티반군간 무력충돌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100달러를 상회하면서 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WTI 가격 역시 전일대비 3.25% 상승한 배럴당 96.05달러로 100달러선에 바짝 다가섰다. 문제는 유가 안정의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TACO)가 단기적으로 재연될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선거 이전에 이란 문제를 봉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를 뒤집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처럼 50여일이 남아 있는 중간선거까지 이란과의 군사충동이 지속된다면 고유가 현상이 상당기간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불안을 막는 소방수 역할을 당분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요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장관이 유가 및 장기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 및 베센트 장관의 깜작 카드는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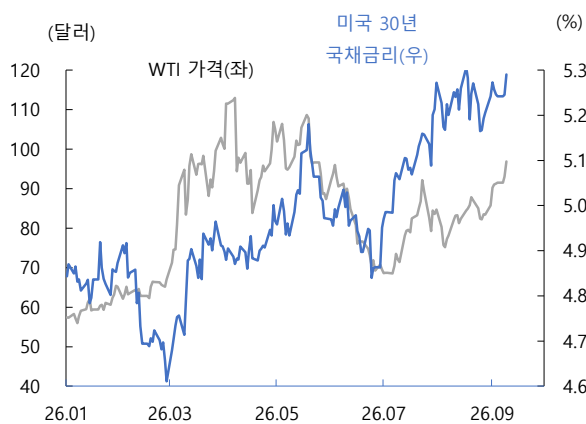
국채금리 및 고유가 현상이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업황은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은 그나마 위안거리이다. 오픈AI GPT-6 아스트라 출시 효과가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반도체 관련 주가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SK하이닉스 ADR 주가가 상장 후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인 것은 반도체업황 사이클 호황 지속 기대감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다만, 미국 장기 국채금리 및 유가 추가 상승 시 반도체지수가 현재의 건조한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WTI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100달러를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현재 4.8%대 수준인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5%를 상회할 경우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또 다시 조정 리스크에 노출될 여지가 크다. 국채금리 및 유가 안정을 위한 묘책이 부재한 가운데 9월 FOMC 회의도 금융시장 불안을 달래주기는 보다는 금리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공산이 높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및 베네토 장관이 금융시장 및 유가불안을 마냥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깜작 카드를 선보일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베네토 장관이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또 다른 카드, 예를 들어 대규모 바이백 추가 실시 등을 내놓을 여지는 있다는 판단이다.

그림1. 바이백 규모 실망감과 유가 상승 등으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세 지속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유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업황 호황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건조한 추세 유지 중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